[성장 배경]

고교 시절에 합창단 단장을 했었는데 직책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닌 단원들을 아우르고 ‘함께’를 추구 하다 보니 학업과 맞물려 단원들을 독려하는 수준이 아닌 아주 열심히 챙겨야 돌아가지는 그런 동아리였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동아리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탓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저의 리더쉽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졸업 후 조부,부친이 해병대 전역자시라 해병대 입대를 하게 되었고 훈련을 하면서 육체적, 정신적 한계를 뛰어 넘으면서 동기간 우애, 협력 등 많은 것을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겪으면서 나를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인지 사회 생활에 있어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.

[계기]

약 8년 정도를 건설 현장 여러 파트에서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. 다양한 현장 일을 하면서 육체적 한계, 위험성(사고) 등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돈을 바라보고 다 이겨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쓴 만큼 시간은 돈으로 바뀌어져 갔었지만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돈은 벌었지만 육체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찾아 다니던 중 앞에 일하던 경력을 다 엎고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컴퓨터 관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. 처음에는 낮 설고 생소하였고 경험도 없어 속도가 나지 안아 답답하였지만 조금씩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코딩하여 실행, 에러를 해결하면서 이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지금 IT업종에서 제 나이가 많고 취업도 어렵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 냈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

[성향이 다른 사람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]

어릴 적부터 생각해왔습니다. “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구나 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을까”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하나였습니다.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. 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먼저 나 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안목을 넓혀야 한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. 아직 젊은 나이라 사회생활 할 때 불편한 점은 없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.

[지원 동기 및 포부]